

社說

아름다운 포천사회를 위하여

아름다운 가게 75호 포천점이 지난 23일 개장했다. 아름다운 가게하면 떠오르는 것은 헌옷 혹은 나눔, 순환이라는 단어들이다.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다.

전국에 75호점이 있는데 그중에서 포천은 인구 16만명으로 가장 작은 도시에 속한다. 그러나 지역의 리더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점은 포천점의 성공을 이끈 원동력이다.

이런 의미에서 아름다운 가게 포천점의 오픈은 지역사회에 시사하는 바 크다. 아름다운 가게는 헌옷, 재활용품, 폐품을 기부하여 환경보호를 돕고,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 주변에는 남아도는 물건들이 얼마든지 있다. 쓸만한 헌옷, 자녀가 성장해서 불필요한 물건, 새 물건이지만 사용하지 않는 물건 등을 아름다운 가게에서는 기증을 받는다.

특히 포천사회 지식인 그룹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손수 아름다운 가게를 오픈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다는 점은 높은 평가를 해야 할 것이다.

이들 물건을 자원봉사자들이 모으고 손질해 필요한 사람에게 재판매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요즘 우리는 대량 소비시대에 살고 있다. 수명이 다하지 않는 물건을 버리는 것은 자원낭비는 물론 환경까지 오염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름다운 가게 포천점이 오픈 되기까지는 포천시법원 임회동 법원장의 남다른 애정이 담겨져 있다. 또 포천점은 양주승 포천시법원 민사조정위원회 회장, 양호식 법무사, 그리고 아름다운 가게 포천점 자리를 선택 내준 김창균 필마트 대표 등 포천리더스 클럽 관계자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나눔의 문화의 정착과 자원의 재활용으로 대변되는 아름다운 가게는 분명 소리없는 생활혁명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해 가고 있다. 포천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애정, 관심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애정과 관심은 지역의 앞날의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는 국내에서 아름다운 가게를 처음 만들어 낸 장본인이다. 박원순 상임이사는 "포천점까지 포함해 아름다운 가게는

전국에 75호점이 있는데 그중에서 포천은 인구 16만명으로 가장 작은 도시에 속한다. 그러나 지역의 리더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점은 포천점의 성공을 이끈 원동력이다.

이동면 도평리 농촌마을종합개발 대상지 선정

2008년부터 5년간 40억원~70억원 사업비 지원 계획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마을이 2월20일 농림부가 발표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됐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해 패격하고 활력이 넘치는 살기 좋은 농촌마을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로 2004년부터 농림부가 농업농촌종합대책,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와 즐기는 마을 언제나 잔치가 있는 '도리돌' 마을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권역은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선진마을 견학, 교육 참가 등 적극적인 참여와 높은 관심을 보인 결실이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양한 지역개발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진행할 계획이며 '농촌마을 가꾸기' 표준교재 제작·보급, 마을주민 대상 선진마을 견학, 권역사무장제도 운영 등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동면 도평리에는 2008년부터 기본계획수립 결과에 따라 향후 5년간 총 40억원에서 70억원 범위 내에서 사업비가 지원될 계획이다.

특필기고

경제 낙관론

2006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상위권의 경제 성장을 달성, 수출량 연간 3000억 달러 돌파, 종합주가지수 최고치 경신, 청와대 브리핑에서 자랑스러운 현 정부 4년의 평가다.

당시 레이건 대통령은 경제가 나빠서 실업자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고성장했다. 그는 이를 증명한다면 서서히 낙관론이 워싱턴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는 풀밭의 다리 한쪽을 제거한 다음에 뛰라고 명령했다. 풀밭은 명령에 따라 뛰다가 바닥에 뒹굴었다.

이 때를 당하여 한 가지 재미있는 우화가 있다. 한 과학자가 풀밭을 지시에 따라 날도록 훈련하였다. 그는 풀밭의 날개 하나를 제거하고는 날라고 명령했다. 풀밭은 날개 하나를 팔딱거리며 날았다. 그는 한쪽 날개마저 뽑은 뒤에 날라고 명령했다. 풀밭은 날지는 못하고 어슬프게나마 뛰는데 성공했다.

그런데 현재의 우리나라 경제 부치는 여러 가지 통계 숫자를 나열하면서 경제가 나쁘지 않다고 말하며 낙관론을 폈다. 약 10년 전의 일이던가, 중국의 경공업담당 고위 관리가 이렇게 말 한 적이 있다. 세계의 인구는 약 50억이다. 중국은 매년 40억 켈레의 신발을 생산한다. 그러니까 대충 80%의 세계 인구가 중국산 신발을 신고 있다.

이것은 한가지 사실을 두고 얼마나 다른 해석을 내릴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좋은 우화가 되었다. 1981년부터 1982년까지 미국 경제는 흑독한 불경기에 시달렸다. 실업률도 대단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피해는 우리국민 모두가 받는다는 데 있다. 당시 레이건 대통령은 경제가 나빠서 실업자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고성장했다. 그는 이를 증명한다면 서서히 낙관론이 워싱턴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는 풀밭의 다리 한쪽을 제거한 다음에 뛰라고 명령했다. 풀밭은 명령에 따라 뛰다가 바닥에 뒹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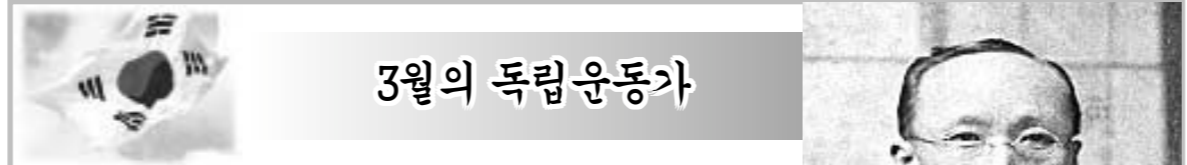
포천·연천 지역 농지 지난해보다 143ha 감소

포천 1만1천104ha, 연천 9천540ha, 건물신축 92ha

국립농산물관질관리원 경기지원 포천·연천출장소는 2006년도 말 현재 포천·연천 경지면적을 전년보다 0.69% 감소한 2만1644(포천 1만1천104, 연천 9천540)ha로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2만1787(포천 1만1천182, 연천 9천605)ha보다 143ha가 줄어든 것이며, 전국 경지면적 180만1470ha의 1.15%, 경기도 경지면적 19만3천628ha의 10.66%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239ha, 연천 '05:4천925ha→'06:4천676ha) 밭 면적은 1만729ha로 지난해 1만196ha보다 533ha(5.2%)가 늘었다. (포천 '05:5천710ha→'06:5천865ha, 연천 '05:4천680ha→'06:4천864ha) 2006년 한 해 동안의 경지면적 증감내역을 보면 총 증가면적은 756(포천:433, 연천:323)ha이고 총 감소면적은 899(포천:511, 연천:388)ha이며 순 감소면적은 143(포천:78 연천:65)ha이다. 경지면적이 증가된 사유는 경지정리 및 개간 104ha이고 논밭전환으로

652ha이며 감소된 사유는 경지정리 52ha, 건물신축 92ha, 공공시설 37ha, 논밭전환 652ha, 기타로 66ha이다. 이는 국립농산물관질관리원 경기지원 포천·연천출장소 담당공무원이 직접 2006년 11월15일부터 11월30일에 걸쳐 포천·연천지역 357개의 표본조사단위구와 2ha이상 집단적으로 경지증감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통계조사공무원이 경지면적을 현지 실측·확인 조사한 결과다.



3월의 독립운동가

우당(憂堂) 권동진(權東鎭) 선생

(1861. 12. 15~1947. 3. 9)

3·1운동 88돌을 맞이하여 민족대표 33인의 한 분으로 독립선언을 주도한 권동진 선생을 3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였다. 선생은 충북 괴산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성장하였다. 일찍이 조국 근대화와 부국강병에 관심을 갖고 19세에 사관양성소에 입학하여 군사교육을 받았다. 이후 육군 초관을 거쳐 함안군수와 거문도 침사를 역임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10여년간 신식문물을 익혔다. 1906년 귀국한 이후 본격적으로 계몽운동에 참여하고, 손병희의 영향으로 천도교에 입도하여 도사로 활동하였다.

1918년 민족자결주의가 알려지자 손병희의 지시로 오세창과 함께 3·1운동을 계획, 추진하는데 앞장섰다. 드디어 1919년 3월 1일 종로 태화관에서 역사적인 독립선언식을 거행하여 세계인방에 '우리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널리 알렸다. 이로 인해 옥고를 치렀지만 민족독립 의지를 잃지 않고, 1927년 민족협동전선으로 신간회를 결성하여 부회장으로 활동하였다. 1929년 광주학생운동이 촉발하자 신간회의 비상조사위원으로 민중대회를 개최하여 전국

적인 독립운동을 확대코자 시도함으로써 재차 고초를 겪었다. 광복 후에도 임정 요인들이 환국하자 오세창과 함께 임시정부 환영 국민대회를 주도하여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는데 힘쓴 선생의 독립운동 공훈과 서거 60주기를 기리어 선정하였다. 주요공적은 ▶1919년 3·1운동 민족대표 ▶1927년 신간회 부회장 ▶1929년 광주학생운동 지원 등이다.

3·1운동 88돌을 맞이하여 민족대표 33인의 한 분으로 독립선언을 주도한 권동진 선생을 3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였다. 선생은 충북 괴산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성장하였다. 일찍이 조국 근대화와 부국강병에 관심을 갖고 19세에 사관양성소에 입학하여 군사교육을 받았다. 이후 육군 초관을 거쳐 함안군수와 거문도 침사를 역임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10여년간 신식문물을 익혔다. 1906년 귀국한 이후 본격적으로 계몽운동에 참여하고, 손병희의 영향으로 천도교에 입도하여 도사로 활동하였다.

포천신문 www.ipcs21.com. 발행처: (주)한국정보통신. 대표전화: (031)542-1507. 편집인: 김영복. 발행인: 김규석.

(주)경지협 설립 등 論議. 경기도지역신문협회 제12회 정기총회. (사)경기도지역신문협회(회장 권순호)는 2월27일 오전 11시 4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부천시 교리호빌 3층 코람룸에서 2007년 제12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언제나 바른 뉴스. 포천신문은 전국 최고의 지역신문. 2000년 10월 25일 포천신문 제140호 발행(여정환)부터 2005년 11월 30일 포천신문 제327호 발행(정기총회)까지의 발행일지 목록.